

광기어린 믿음에 잠재된 '필요의 논리'

분명 사람들이 광기어린 믿음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는 것들이 있다. 단적인 예로 종교가 그러하며, '전통(민족)'이 그러하다. 그러나 그것들은 끊임없이 현재적으로 재현되어 항상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착각을 유도한다. 심지어 그것들은 우리와 호흡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사회의 본질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그리고 생활 습성 하나하나를 규제하고 통제한다. 여기서 유념해야 되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현 논리'이다. 즉, 실체 없는 것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가감되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추적이다. 실체 없는 재현은 상상의 세계에서 구축 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완벽한 재현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며,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필요의 논리'가 개입하기 마련이다. 당연지사 '필요의 논리'는 쉽게 포착되지 않도록 내부로 침전되어 있으며, 외부는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포장하여 우리 삶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상정한다.

프레임에 담긴 어색한 상황

몇 달 전만해도 죽을상을 하고 있던 사람이 최근에는 활짝 웃는 모습으로 연일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 그는 현 시점을 위기의 상황이라고 규정했으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분담할 것을 강요했으며, 민족과 전통을 운운하며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애통한 표정으로 온갖 미사여구를 늘어놓았지만, 그것은 너무도 식상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동안 대통령의 취임연설 속에서도, 지금도 줄줄이 외워지는 국민교육헌장 속에서도, 나라를 구한 영웅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작가의 미적 태도와는 상관없이 제작된 1970년대 민족 기록화에서도, '한강의 기적'과 '민족의 저력'을 운운하는 각종 언론 보도 등에서도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서사구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현재에 또 다시 호출하여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것은 무정형의 '전통(민족)'은 만들어 질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널리 유포될 수 있으며, 그것이 가장 강력한 신념 체계로 자리 잡았고, 잡을 수 있다는 것에 기대고 있다.

채승우의 사진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통재현행사'에 대한 기록이다. 전통은 과거에서 유구히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관점에서 해석되고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내재된 것이라 판단되는 민족정체성 또한 어떠한 관점(필요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전통재현행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훑어보면, 굳건하게 믿고 있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공동체의 신념을 확인하는 것에 멈춰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작가가 밝히고 있듯이 전통재현행사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노력한다." 그러기에 전통재현행사의 작동원리는 현재의 시선을 과거의 좋은(상상으로 구축된) 시절로 넘기고, 현재를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 있는 지점 역시 과거의 어느 지점이 아니라 현재이다. 그러나 전통재현행사를 보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과거만을 본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확인한다. 즉, 자신의 시각에 포착된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 밖으로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해 버리고 자신의 믿는 상태만을 본다. 그곳에는 현재를 상정할 수 있는 상징물들은 자리하지 못한다. 채승우의 사진은 이와는 다르게 화면에 이 행사가 '재현'되고 있음을 담아내고 있다. 얼핏 보면 그의 사진 역시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상기시키는 여타 사진과 다르지 않게 보인다. 그러나 그의 사진 속에는 이것이 '재현'임을 알리는 지표들이 있다. <광화문, 종묘제례 어가행렬>에는 광화문이 없다.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곳

에는 공사장 가림막이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는 멈춰선 차량들도 얼핏 보인다. 그러나 행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광화문인양 아무렇지 않게 연기를 하고 있다. 가짜 수염을 하고, 가짜 의복을 입고 말이다. 그들은 마치 한편의 연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공사장 가림막을 무대장치로, 광화문 도로를 무대로 말이다. 또 다른 작품인 <정조, 반차 행렬>도 전면에는 전통의 이름으로 포장된 한 인물이 있다. 그러나 뒷면에는 즐비하게 늘어선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 어색한 상황을 채승우는 자신의 프레임 안으로 가둔다. 이러한 채승우의 프레임은 전통재현행사에서 '재현'을 망각한 시선을 상기시키며, 내부로 침전된 '필요의 논리'를 전면 에 드러낸다. 이렇게 획득된 시선을 바탕으로 지금-여기를 다시 보기를 촉구하면서 말이다.

영원성에서 드러나는 죽음의 몸부림

그간의 작업에서 조습은 자신을 포함한 이 사회가 무비판적으로 역사적 관점(현 사회 구조의 원천이 되는 불합리성)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자신의 목소리를 몸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채승우와 마찬가지로 조습은 우리가 진실(실체 혹은 사실)이라고 당연하게 믿는 것에 대한 불신을 작업의 바탕으로 삼는다. 이것은 무비판적 사회에 대한 작가의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조습의 이러한 작가적 태도는 우리의 신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진실이 사실은 현재적 관점에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필요의 논리'에 의해 구축된 것이라고 본다. 그러하기에 조습은 이곳에 자신의 몸을 던져 비틀고 꼬집는 비판적 행위를 통해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필요의 논리'를 공개한다. (몇몇의 평자는 조습의 이러한 태도를 키치적 감성이 자아낸 패러디를 통해 세대의 비정치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왜 그곳에 몸을 던졌는지에 대한 분석의 미비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근시안적 관점에서 보면 조습의 이번 전시는 그간의 작업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전시서문에서 정용도가 밝히고 있듯이 "사진적인 기록으로서의 사건, 행위의 기록으로서의 사진, 특정한 시간과 공간의 현재적인 재해석, 이미지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낭패감" 등이 이번 전시 작품이 이전 작업과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단지 그것이 종교와 신화라는 세계로 옮겨 갔을 뿐이다. 하지만 이 역시 그가 중심에 두고 있었던 내부에 깊게 침전된 '필요의 논리'가 작동하는 요소이다. 종교와 신화는 채승우가 제시한 '전통(민족)'과 동일한 의미 층위를 지닌다. 자신들이 만든 것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당성에 위배되는 것은 과감하게 처단한다. 이렇게 지켜진 순결성은 내부 구성원들에게 유포되고 강한 신념체계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것에 의해 구속되고 통제되기 마련이다.

<누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조습이 일차적으로 내린 답은 종교와 신화이다. 그들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구축된 것이며, 더 나아가 영원한 것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종교와 신화는 이러한 영원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한다. 조습의 사진은 종교와 신화적 도상을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정작 화면은 그들은 영원성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한다. 조습은 그들을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에 안치 시켰다. <Who Wants to live forever 01>는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림>을 차용한 것이다. 예수는 죽음의 상태로 십자가로 내려오지만, 오히려 그것은 영원에 다다른 길이었다. 물론 그것은

개인의 영원성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영원성에 다다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조셉의 <Who Wants to live forever 01>는 죽음과 공포의 기운이 음흉하게 깔려 있다. 인물들의 표정은 마치 유령처럼 괴기스럽고 불안하다. 즉 예수가 내려오고 행위는 영원한 삶이 아닌 죽음에 다다른 것이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상황에 놓인 인물들의 시선이다. 이들의 시선은 한 지점을 향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마주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공포로 가득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 할 뿐이다. 성스럽지도 않고 합기도 이뤄지지 않는 그 지점은 영원한 삶이 보장되지도 않으며, 단지 살기 위한 그들만의 처절한 몸부림만이 공포스럽게 존재한다. 그곳에는 그간 굳게 믿었던 신념체계의 그 어떠한 면도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가 없지만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무수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제한다.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불합리성을 밝혀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신의 권위를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너무 명백하다. 더욱 교묘하게 더 깊숙하게 '필요의 논리'를 침전 시킬 것이다. 그렇다고 앉아서 가만히 간과할 수도 없다. 채승우와 조셉은 그 중심에서 그것을 까발리고 교란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들의 이러한 작업이 지속되길 바란다. 유쾌하지만 불편하게, 불편하지만 유쾌하게 말이다.

이대범(미술비평)